

## 마르기전에 “Wet Layers”

이진영 작가는 사진이라는 매체를 기반으로 탐구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가능성을 확장해오고 있다. 1851년에 발명된 유리판에 감광유제를 발라 그것이 마르기 전에 촬영하고 현상하는 암브로 타입(Ambrotype)이라는 습판사진술을 매개로 작가 자신이 바라본 풍경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닌 내재되었던 추상충동의 발현으로 생성된 우연성과 필연성을 작품에 녹여낸다. 작가는 구상 적 이미지와 추상적 이미지를 교섭 시키고 현실과 상상, 사진과 회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은은하고 몽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구름, 하늘, 식물 등 자연풍경을 소재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희미하고 모호하게 표현하고, 암브로타입의 방법으로 자연의 빛과 분위기를 담은 사진을 한지, 실크 노방, 투명 매쉬 등을 활용하여 경계가 불명확하지만 생명력을 머금은 유기 적 공간에 대해 새로이 확장된 실험을 보여주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섬세한 감성을 이끌어내게 한다.

Lee Jinyoung has been exploring based on the medium of photography and expanding the possibilities through various experiments. The work incorporates the coincidence and inevitability created by the expression of the inherent abstract impulse, rather than reproducing the landscape that the artist himself saw through the wet-plate photography of Ambrotypes, which was taken and developed before it dried up. The artist synthesizes abstract and conceptual images and creates subtle and dreamy images across the boundaries of reality, imagination, photography, and painting. In addition, in this exhibition, natural scenery such as clouds, skies, and plants were expressed faintly and vaguely through various processes and Using hanji paper, silk-organza, transparent mash, etc., photographs containing natural light and atmosphere by Ambrotype methods were newly expanded into an organic space with unclear boundaries but vitality. These works bring out the delicate sensibility of the viewer.

by Yejoong Kim (curator)